

여성에 대한 남성의 동기와 성적 괴롭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현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적 괴롭힘 행위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남성의 여성에 대한 동기를 양가성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고 이러한 양가적 동기가 성적 괴롭힘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소재의 대기업 일반 사무직에 근무하는 남성 48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동기의 양가성에 관한 분석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동기는 적대적 동기와 우호적 동기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나타났으며, 양가적인 동기와 성적 괴롭힘 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에서 관계요구형 성적 괴롭힘이나 신체/환경형 성적 괴롭힘 행동에는 여성에 대해 친밀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호적인 동기가, 언어형 성적 괴롭힘에는 여성을 지배하고 성역할의 구분을 뚜렷이 유지하고자 하는 적대적인 동기가 작용하고 있음이 설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성적 괴롭힘 현상을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 등이 논의되었다.

I. 서론

‘남성의 성적 괴롭힘은 무죄?’ 성적 괴롭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은, 여성과 남성이 성적 괴롭힘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종종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공적인 장면에서 성과 관련해 일어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적 행동을 괴롭힘으로 해석하고 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남성들은 이를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사소한 장난 등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남

성과 여성이 이와 같이 직장 내 이성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 작용을 다르게 해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성적 괴롭힘에 대한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도 1980년대 이후 두 세대에 걸쳐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우선 ‘무엇이 성적 괴롭힘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Till, 1980; Fitzgerald & Hensson-McInnis, 1989; Gruber, 1992)을 성적 괴롭힘에 대한 일 세대 연구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심리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합

의를 이루는 성적 괴롭힘의 구성 차원을 밝히고자 하였다(Fitzgerald, Gelfand, & Drasgow, 1995). 이러한 연구는 성적 괴롭힘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성적 괴롭힘의 구성 요소 중 어떠한 차원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지각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성적 괴롭힘에 대한 남녀간의 지각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데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성적 괴롭힘의 개념적 이해에 기초하여, 성적 괴롭힘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다. 성적 괴롭힘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이 세대 연구는 크게 조직적 접근과 개인적 접근의 두 가지 입장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까지 주를 이루은 연구는 성적 괴롭힘 행위자의 지위와 직업 유형 등과 같은 조직적 변인에 초점을 둔 접근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 변인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Fain & Anderton, 1987; LaFontaine & Tredeau, 1986; Niebuhr & Boyles, 1991), 성적 괴롭힘과 관련된 다른 예측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 접근을 하고 있는 소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대상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예를 들면,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 선행 희생화의 경험 등)을 성적 괴롭힘의 선행 변인으로 고려하고 있다(Fitzgerald, Swan, Magley, 1997; Dansky & Kilpatrick, 1997; Pryor & Day, 1988; 신성자, 1993; 이성은, 1995). 이는 대부분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연구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되지만, 이러한 연구는 여성을 성적 괴롭힘의 원인 제공자로 부각할 위험이 있고 행위의 발생 원인이나 대안에 대해서 적절한 시사점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남성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불과 몇 편에 불과한데, 여기서는 주로 남성의 지배

성을 성적 괴롭힘에 대한 주요 설명 변인으로 고려하고 있다(Pryor, 1987; Pryor, LaVite, & Stoller, 1993; Pryor & Stoller, 1994). 즉, 성적으로 공격적인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행동에서 권력과 지배성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동기는 무의식적인 것이어서 남성들 자신은 이를 의식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설명은 성폭력이나 고용조건형 괴롭힘 행동 등과 같은 일부 행동에는 적절한 설명일 수 있으나, 다른 종류의 성적 괴롭힘, 즉 남성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사소하거나 우호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여성에게는 '심각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형의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성적 괴롭힘 현상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Fiske와 Glick(1995)은 많은 남성들이 여성과의 상호작용에서 추구하는 일반적인 동기가 성적 괴롭힘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제안하면서, 성적 괴롭힘의 이러한 양가적인 해석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여성을 지배하려는 동기와 친밀해지려는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남성은 여성에 대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반대의 감정이 공존하는 것은 종종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는 특정 행동을 하고도 남성 자신은 이를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근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 괴롭힘의 심리적인 기제를 이해하고자, 우선 여성에 대한 남성의 동기에 관하여 양가성에 초점을 두어 이론적인 검토를 하고, 이러한 동기 요인이 성적 괴롭힘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성차별주의(sexism)는 주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부적인 감정과 관련해 개념화되어 왔으나, 남성과 여성 간에는 전통적인 내/외집단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독특한 양가성이 있다. Glick과 Fiske(1996)는 성차별주의의 이러한 양가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우호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로 구성된 양가적 성차별주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 지배주의, 남성 우월주의, 그리고 적대적인 형태의 성욕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여성차별주의적인 부적 감정과 관련된다. 우호적 성차별주의는 비록 성차별적이긴 하지만 주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여성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예, 양육성)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성애적 친밀함을 추구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성차별주의는 모두 3가지 공통된 요소를 가지는데, 각 요소는 적대적이고 우호적인 측면을 가진다. (가) 가부장주의(paternalism)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적이고 지배적인 태도 뿐 만 아니라 “약한 성”으로서의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나) 성분화(gender differentiation)는 성을 구분하려는 동기이다. 성분화 동기는 최초로 집단에 근거해서 학습되는 자아 정체감의 한 요소로서(Maccoby, 1988), 남성들 정체감의 이러한 측면은 여성이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자존감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남성들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태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역할을 지키는 어머니와 가정주부로서의 여성에 대해서는 우호적 태도 또한 증진시킬 수 있다(Eagly & Mladnic, 1993). (다) 이성애(heterosexuality)는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를 독특하게 구분해 주는 요소이다. 대부분의 내집단과 외집단은 서로 친밀감을 회피하기 위해 뚜렷한 사회적인 경계선을 유지한다(Tajfel, 1982). 그러나 남성과 여성간

은 가장 친밀한 관계가 같은 성을 가진 내집단에서보다, 종종 성별이 다른 외집단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Bersched, Snyder & Omoto, 1989). 비록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성적 이끌림이 여성에 대한 지극히 긍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친밀함에 대한 순수한 소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괴롭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남성에게 있어서 성적인 욕망은 주로 적대감이나 여성을 지배하려는 소망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gh & Raymond, 1995; Pryor & McKinney, 1995).

성차별적 태도의 3가지 요소에서 나타나는 명백한 양가적인 동기들은 성적 괴롭힘의 두 가지 핵심적인 유형, 즉 이성애적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순수한 소망에 의해 동기화된 “순수한(주관적으로 우호적인)” 형태와 성욕(sexuality)이 단지 남성 지배의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을 뿐인 “적대적” 형태를 시사한다.

순수한 성차별적 태도는 저항하려는 명백한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계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낭만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그 형태와 반복에 있어서 괴롭힘이 될 수 있다(예, Robinson v. Jacksonville Shipyards, Inc., 1989, Banks III, 72-81, Fiske & Glick(1995)에서 인용).

적대적인 성차별적 태도는 이성 동료들 간에서 느끼는 경쟁심 때문이거나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가지는 지배적인 가부장주의 때문이건 간에, 지배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다(예, Robinson, I:196-202; II:1-9, Fiske & Glick(1995)에서 인용).

그러나 우호적이고 적대적인 동기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괴롭힘은 흔히 적대적이고 우호적인 성차별주의의 양가적 요소 모두를 가지고 있다. 개인 내에서 주관적으로 긍정적인 동기와 적대적인 동기가 어떻게 조합되었나 에 따라, 양가적 괴롭힘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양가성의 첫 번째 하위 유형은 표면적으로 보호

적인 가부장주의와 이성애적 친밀감 (우호적인 성차별주의)의 감정과, 내면적으로 지배적인 가부장주의(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조합된 것이다. 두 번째 하위 유형은 표면적으로 이성애적 친밀감 (우호적 성차별주의)과 경쟁적인 성분화감(적대적인 성차별주의)이 조합된 것이다.

이런 양가적인 현상은 흔히 단일 또는 소수의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들어갈 때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해당 남성이 자신의 행동을 괴롭힘으로 보지 않고 (Bargh & Raymond, 1995)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우호적 행동으로 합리화하거나 남성들끼리의 유대감으로 쉽게 합리화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양가적 괴롭힘은 더 심해질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성적 괴롭힘을 일으키는 동기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남성의 행동과 심리를 직접 연구하지 못했다. 그 결과 성적 괴롭힘 영역에서의 연구들은 행동 당사자인 남성들의 심리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남성들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먼저 여성에 대한 남성의 동기 구조를 살펴보고, 남성의 동기와 직장내 이성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 간의 관계를 검증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대기업 S, D, H사의 일반 사무직에 근무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에 7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나, 550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78.5%). 이들 가운데 일부 질문에만 응답한 설문지와 특이한 반응 패턴(예, 모든 질문에 4라고 응답)이 발견된 설문지(40부)와, 그리고 본 연구에 부합되지 않는 직무에서 일하

는 것으로 판단된 응답자(영업직 근무자, 회계사나 변리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설문지 25부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적 괴롭힘 행동의 유형과 만연 정도가 직업의 유형이나 조직 풍토에 따라 다를 것이라 예측되는 바(Fiske & Glick, 1995), 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직종을 일반 사무직으로 통제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대상자의 수는 총 485명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30.5세였고, 학력은 대졸자가 전체 응답자의 49.5%를 차지하였다. 직위는 일반사원이 52.7%, 대리과 과장급은 각각 25%, 19.6%였으며 부장급 이상은 2.8%에 불과했다. 결혼여부는 미혼 47.1%, 기혼 52.9%였고, 기혼자의 평균자녀수는 0.7명이었다.

2.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는 각 사 담당 부서와의 협의 하에 1997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에 걸쳐 근무 중에 있는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개인별로 봉투에 넣어서 배부되었고, 응답자는 본 설문에 들어가기 전에 설문의 내용과 익명성 보장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읽도록 했다. 설문지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25분이었으며, 응답을 마치면 연구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읽게 하였다. 완성한 설문지는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사무실 앞에 위치한 빈 상자에 개인별로 넣게 하였다. 봉투의 겉면에는 응답자의 소속 부서나 이름 등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설문지의 구성은,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ASI), 성적 괴롭힘 척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 순으로 구성되었다.

3. 측정 도구

1) 성적 괴롭힘 척도

성적 괴롭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 보

고식 성적 괴롭힘 척도(김현정, 1998)를 사용하였다(부록 1 참고). 이 척도는 언어형 성적 괴롭힘, 관계요구형 성적 괴롭힘, 신체/환경형 성적 괴롭힘을 측정하는 총 3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척도의 신뢰도는 언어형 괴롭힘 .84, 관계요구형 괴롭힘 .83, 신체환경형 괴롭힘 .76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성적 괴롭힘의 3 요인 구조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지지되었는데(GFI .96, AGFI .95, NFI .94), 각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형 괴롭힘은 여성의 신체나 성, 개인적 사생활에 대한 농담이나 놀림, 그리고 성차별적인 언급 등을 나타내고, 관계요구형 괴롭힘은 여성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상대 여성이 그러한 요구에 응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어떤 형태의 불이익이나 보상이 올 수 있는 형태의 괴롭힘을 의미한다. 신체/환경형 괴롭힘은 직장에서 여성이 싫어하고 불쾌하게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과 야한 그림이나 잡지, 또는 음란 비디오 등을 여성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두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모든 문항은 해석상의 문제가 없도록 행동적인 용어로 기술되었고, 사회적 바람직성 기준에 의해 가능한 한 영향을 덜 받도록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기술되었다. 한편, 가치 중립적인 표현으로 문항 내용이 애매해지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 행동의 예가 제시되었다. 성적 괴롭힘 개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성적 괴롭힘'이라는 단어는 설문지 전체를 통해 사용되지 않았다. 단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모두 마친 피험자에게 연구내용에 대한 피이드백을 제공하면서 본 연구가 성적 괴롭힘에 관련된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문항은 행동의 심각성 정도가 덜한 것부터 심한 것 순으로 배열되었고, 모든 문항은 "직장에서, 나는 ..." 이라는 문구로 시작됨으로써, 문항에서 기술된 행동이 직장 장면에서 일어나는 경

우로 한정되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 상에서 자신의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값을 나타내도록 하였다(1 = 한 번도 없다, 2 = 한 번, 3 = 두 번, 4 = 가끔, 5 = 자주).

2)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Ambivalent Sexism Inventory: ASI)

성적 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소로 가정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양가적 동기는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AS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부록 2 참고). ASI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6점 척도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평가하게 했다(0=강하게 반대 ~ 5=강하게 동의). Glick과 Fiske(1996)가 ASI를 타당화하기 위해 실시한 일련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지수가 .83 ~ .92 범위의 값을 나타냈고, 하위 척도별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척도가 .80 ~ .92, 우호적 성차별주의 척도가 .73 ~ .85 범위의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또한 그들은 확인적 요인분석방법을 통해 적대적 성차별주의 요소와 우호적 성차별주의 요소가 각각 다른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영어판 ASI는 한국어로 번안한 후 이를 이중국어 사용자가 역번역하여 그 의미를 검토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심리학 전공자 5인이 내용을 검토하였다.

4. 분석

본 연구 문제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여성에 대한 동기의 구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부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두번째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동기 요인이 성적 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대적 동기 요인점수와 우호적 동기 요인점수를 각 예측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은 성적 괴롭힘의 3가지 하위 유형에 대해 각각 실시되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에는 LISREL-pc용 8판(Joreskog & Sorbom, 1993)이 사용되었고,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SAS가 이용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여성에 대한 남성의 동기에 관한 분석

1) 탐색적 요인 분석

여성에 대한 동기의 구성 개념을 알아보고자,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22문항에 대해 공통요인 분석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변량의 초기값은 SMC로 하고 Varimax 방식으로 직각 회전하였다. 각 요인의 설명 변량 비율과 Scree 검사를 기준으로 요인의 수는 2개

로 결정하였다. 요인 계수 .30이하의 문항을 제외시키고, 요인 I에 8 문항, 요인 II에 7 문항, 총 15 문항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5 문항에 대해 요인의 개수를 2로 지정한 후(NFACT=2) 요인구조를 다시 산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항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동기의 요인구조에 대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요인 구조에서 요인 I은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요, 요인 II는 우호적 성차별주의 동기요 명명할 수 있다. 각 요인들의 설명변량을 살펴보면,

<표 1> 직각 회전 방식으로 산출한 여성에 대한 동기의 요인 구조

문항#	문항 내용	요인1	요인2	h^2
05	여성들은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한다	0.742	-0.044	0.553
14	여성은 그들이 직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과장한다	0.661	0.014	0.437
04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심없는 말이나 행동도 성차별주의로 해석한다	0.655	-0.029	0.430
10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이 여성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 충분히 감사할 줄 모른다	0.631	0.042	0.400
16	여성들은 공정한 경쟁에서 지게 되면, 대개는 그것이 여성 차별 때문이었다고 불평한다	0.592	0.033	0.352
15	여성은 자신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남성을 얻게 되면, 대개는 그를 단단하게 속박하려고 한다	0.530	0.131	0.299
11	여성은 남성을 조종함으로써 권력을 얻고자 한다	0.519	0.133	0.287
02	많은 여성들이 "평등"이라는 미명아래, 실제로는 고용정책 등에서 남성들보다 자신을 유리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특혜를 추구하고 있다	0.397	-0.142	0.178
08	많은 여성들이 남성에게는 거의 없는 순수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0.034	0.612	0.376
19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뛰어난 도덕적 감수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0.129	0.592	0.368
22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문화에 대해 더 세련된 감각과 좋은 취향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0.027	0.557	0.311
20	남성은 여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서 자신의 복지를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	0.269	0.433	0.260
09	여성은 남성에 의해 흠모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0.289	0.401	0.244
21	여성주의자가 남성에게 하는 요구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0.139	0.352	0.144
12	모든 남성은 사랑하는 여성을 가져야 한다	0.236	0.293	0.142
고유치		3.126	1.655	4.781
설명변량(%)		65.4	34.6	
누적설명변량		65.4	100.0	
신뢰도 α		0.812	0.655	

<표 2> 성적 괴롭힘에 대한 여성에 대한 양가적 동기의 단계적 회귀분석표

언어형 성적 괴롭힘			R ² = 0.013		F _{1, 483} = 6.26 *
예측변인	단 계	df	β	Sr ²	F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	1	1	0.130	0.013	6.26 *

관계요구형 성적 괴롭힘			R ² = 0.036		F _{2, 482} = 8.81 ***
예측변인	단 계	df	β	Sr ²	F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	1	1	0.109	0.024	11.74 ***
우호적 성차별주의 동기	2	1	0.074	0.012	5.77 *

신체/환경형 성적 괴롭힘			R ² = 0.030		F _{2, 482} = 7.41 ***
예측변인	단 계	df	β	Sr ²	F
우호적 성차별주의 동기	1	1	0.087	0.017	8.22 ***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	2	1	0.078	0.013	6.51 *

주) Sr² : squared semi-partial correlation

β : 표준화된 회귀 계수

R² : 전체모델에 대한 설명량

*** p<.001, ** p<.01, * p<.05

여성에 대한 동기의 요인 구조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는 65.4%의 변량을, 우호적 성차별주의 동기는 34.6%의 변량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양가적 동기의 요인 구조에서 이들 두 하위 요인간 상관 계수는 .14를 보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

1차 분석 과정에서 선정된 15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의 2요인 해를 초기 모델로,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485 명의 응답자료 중 24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문항은 각각 해당 요인에 만 부하되도록 했으며 잔차들간의 상관은 없고 두 요인간에는 상호 상관이 존재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UL 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모형에 대

한 전반적인 부합지수는 모두 수용할 만한 수준의 부합도를 보였다(GFI .96, AGFI .94, NFI .90), 양가적 동기의 검증 모델에 대한 표준화된 요인 계수의 LISREL 추정치는 대체로 고정지수가 2.0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여성에 대한 양가적 동기의 2개 요인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적대적 형태와 우호적 형태, 2개의 요인 구조로 검증되었고, 이는 여성에 대한 동기가 양가적 구조를 가진다는 이론적 가정이 검증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양가적 동기와 성적 괴롭힘 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

남성의 여성에 대한 동기의 구성 개념을 분석한 결과 양가적인 구조가 지지되고 있으므로, 이

제 여성에 대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동기가 성적 괴롭힘 행동에 대해 어떤 효과를 갖는지 그 관계를 알아보려고 단순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동시분석은 예측변수들끼리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때 전체 모델은 유의하더라도 유의한 예측변수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준부분상관자승(squared semi-partial correlation: Sr^2)이 큰 순서대로 변수를 모델에 넣고, 먼저 들어간 변수를 통제된 후 추가된 독립변수의 증분적 설명력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단계적 회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언어형 성적 괴롭힘에 대한 단계적 회귀 분석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만 언어형 괴롭힘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선택되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는 언어형 괴롭힘의 1.3%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호적 성차별주의 동기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의 설명력이 통제되었을 때 언어형 괴롭힘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은 1단계로 끝났다. 이 결과로부터, 남성들이 직장에서 여성에게 짓밟는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행위, 그리고 성차별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 등의 언어적 행동은 여성을 지배하려는 동기나 여성 직장 동료를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 배제시키려는 성분화 동기로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계요구형 성적 괴롭힘에 대한 단계적 회귀 분석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는 2.4%의 설명력으로 관계요구형 성적 괴롭힘을 설명했고, 적대적 동기의 효과가 통제되고 난 뒤 우호적 성차별주의 동기는 1.2%정도의 설명력을 가졌다. 이 결과는 일부 남성들이 직장에서 보상이나 보복을 조건으로 하여 여성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구할 때, 대상 여성을 지배하려는 적대적 동기가 작용함과 동시에 성적 대상으로서 그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우호적 동기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환경형 성적 괴롭힘에 대한 단계적 회귀 분석 결과, 우호적 성차별주의 동기가 신체/환경형 괴롭힘의 1.7%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호적 동기가 통제된 후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의 설명력은 1.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직장에서 일부 남성들이 여성이 원치 않을 때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여성들이 볼 수도 있는 곳에 음란물을 놓아두는 등의 행위가 여성에 대한 양가적인 동기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적 괴롭힘 행동은 대체로 남성들의 성차별주의 동기로 유의미하게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언어형 성적 괴롭힘은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에 의해서만 설명되었고, 관계요구형과 신체/환경형 괴롭힘의 경우는 여성에 대한 우호적 성차별주의 동기와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가 모두 유의하게 이들 괴롭힘 행동을 설명했다. 여기서 이들 두 유형에 대한 남성들의 동기는 서로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적 괴롭힘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자, 우선 여성에 대한 양가적인 성차별주의 동기의 구성 요인을 검증하고, 이들 변인이 성적 괴롭힘 행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문제들을 차례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의 여성에 대한 동기의 구성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Glick & Fiske, 1996)를 사용하여 이들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주의 동기는 적대적 동기와 우호적 동기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는 여성에 대한 지배욕과 남성 역할을 위협하는 부정적 감정과 관련되고, 우호적 성차별주의 동기는

친밀성이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관련된다. 이들은 비록 내용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평가적 감정을 수반하지만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어서, 이러한 양가적인 동기가 개인 내에서 서로 갈등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여성에 대한 동기가 적대적인 성차별주의와 우호적인 성차별주의의 양가적인 형태를 띠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Glick & Fiske, 1996).

다음으로, 양가적 동기가 성적 괴롭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적 괴롭힘 척도에서 측정하고 있는 괴롭힘의 각 유형과 양가적 동기간의 관계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형 성적 괴롭힘은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우호적 성차별주의 동기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 변인의 설명력이 통제되었을 때 언어형 괴롭힘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성들이 직장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적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행위가 흔히 남성들이 주장하는 우호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여성을 지배하려는 동기나 여성 직장 동료들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 배제시키려는 성분화 동기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시사한다.

관계요구형 성적 괴롭힘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와 우호적 성차별주의 동기는 관계요구형 괴롭힘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부 남성들이 직장에서 보상이나 보복을 조건으로 하여 여성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구할 때에는 대상 여성을 지배하려는 적대적 동기와 함께 성적 대상으로서 그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우호적 동기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환경형 성적 괴롭힘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는, 직장에서 일부 남성들이 여성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여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음란물을 놓아두는 등의 행위가 여

성에 대한 양가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 주었다. 이는 신체/환경형 괴롭힘 행동이 여성에 대한 친밀감 표시로만 너그럽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효과의 크기 면에서 우호적 동기 요인은 적대적 성차별주의 동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신체/환경형 괴롭힘 행동에서 적대적 동기와 우호적 동기가 서로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전형적인 성적 괴롭힘 사건으로 알려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 남성은 “너무 귀엽고 예뻐서 그러는거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1심 판결문,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설명에 대해 재판부는 * 교수의 행동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긴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밝히면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호적으로 해석되는 이러한 동기의 주요 부분은 친밀감 추구와 동시에 자신보다 ‘약한 성’으로서의 여성을 지배하려는 가부장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이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서 피해를 보고하는 상황이라면 남성이 주장하는 우호적 동기의 이면에는 적대적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방법론 측면에서 조사 연구 기법은 성적 괴롭힘의 구성 요소와 이현상의 전반적인 이해에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괴롭힘이 일어나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적 괴롭힘 척도는 성적 괴롭힘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가치 중립적이고 행동적인 용어로 기술하고 있는데, 각 문항에서

기술된 행동은 어떠한 맥락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괴롭힘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닌 경우일 수도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성적 괴롭힘 척도에 덧붙여 성적 괴롭힘이 일어난 맥락에 대한 개방식 질문을 포함시켰으나, 이러한 개방식 질문에는 응답한 사람의 수가 극히 적어 결과의 해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후 연구에서는 다른 방법론에 따른 연구를 실시해 볼 만하다. 시나리오 유형의 연구는 맥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잇점을 가지나 생태학적 타당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반면, 심층 면접 방법은 성적 괴롭힘이 일어난 맥락과 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연구와 함께 실시해 볼 만한 방법이다. 이 때 본 연구에서 밝혀진 성적 괴롭힘의 구성 차원을 행동 분류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적 괴롭힘 척도는 일반 사무직 장면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에 관한 연구에 적절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조직 맥락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다른 형태의 성적 괴롭힘 문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성별 괴롭힘(gender harassment)은 비록 구성 요소의 개념적 성격이 같다 하더라도, 광산이나 공장, 경찰서 같은 장면에서의 괴롭힘과 대학이나 법률 사무소 같은 장면에서의 괴롭힘은 명백히 다른 형태를 띠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연구자는 어떤 조직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을 연구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선정된 직장의 조직적 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그 장면에 적절한 문항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델의 전체 설명력이 낮았던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만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적 괴롭힘 척도에 대한 응답이 매우 낮은 변산성(variability)을 가진다는 점이다. 종속 측정치에서 응답자들이

동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 예측 변인들은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후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다양한 행동을 보다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항, 즉 응답 반응의 변산성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성적 괴롭힘에 대한 보다 폭넓은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검증된 동기 요인은 특정 조직의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사무직 직장 장면이 개인의 성적 괴롭힘 행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적 변인들을 모두 통제 변인으로 다루고 있어서 이러한 조직적 맥락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후 연구에서 남녀 비율이나 지위, 파워와 같은 조직 구조적 수준의 변인들을 연구에 포함시키고 여러 직업에 대한 대규모 조사 연구가 실시될 때,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성적 괴롭힘에 대해 가지는 효과는 조직적 맥락의 조절 효과와 함께 생태학적으로 타당하게 검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 직장내 성적 괴롭힘은 여전히 숨겨진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직장 내 이성 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성 관련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심리학적 이론과 방법은 특정한 부분의 과장이나 축소 없이 성적 괴롭힘 현상을 그대로 투영해 주고 이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을 모색함으로써, 성적 괴롭힘의 문제를 결코 곱고 골치 아픈 문제로서 들춰내기보다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현정(1998). 직장내 성적 괴롭힘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울민사지방법원(1994.4). 93가합77840 손해배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1995.7). 94나15358 손해배상 판결.
- 신성자(1993).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의 유형,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피해 여성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5집, 사회과학연구소.
- 이성은(1995). 직장내 성희롱의 순응과 저항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rgh, J. A. & Raymond, P. (1995). The naive misuse of power: Nonconscious sources of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51(1)*, 85-96.
- Berscheid, E., Snyder, M., & Omoto, A. (1989). The Relationship Closeness Inventory: Assessing the closenes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92 - 807.
- Dansky, B. S., & Kilpatrick, D. G.(1997), Effects of sexual harassment. In W. O'Donohue(Ed.), *Sexual harassment: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Eagly, A. H., & Mladinic, A.(1993). Are people prejudiced against women? Some answers from research on attitudes, gender stereotypes, and judgements of competence. In W. Str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5, pp. 1-35)*. New York: Wiley.
- Fain, T. C. & Anderton, D. L. (1987). Sexual harassment: Organizational context and diffuse status. *Sex Roles, 22*, 291-311.
- Fiske, S. T. & Glick, P. (1995). Ambivalence and stereotypes cause sexual harassment: A Theory with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change. *Journal of Social Issues, 51*, 97 - 116.
- Fitzgerald, L. F., Swan, S., & Magley, V. (1997). But was it really sexual harassment?: Legal,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definitions of the workplace victimization of women. In W. O'Donohue(Ed.), *Sexual harassment: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Fitzgerald, L. F., Gelfand M. J., & Drasgow F. (1995). Measuring sexual harassment: Theoretical and Psychometric Advance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7(4)*, 425-445.
- Fitzgerald, L. F. & Hensson-McInnis, M. (1989). The dimensions of sexual harassment: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309-326.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Gruber, J. E. (1992). A typology of personal and environmental sexual harassment: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1990s. *Sex roles, 26(11/12)*, 447-464.
- LaFontaine, E. & Tredeau, L. (1986). The frequency sources and correlates of sexual harassment among women in traditional male occupations. *Sex Roles, 31*, 422-438.
- Maccoby, E. E. (1988). Gender as a social categ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4*, 755-765.
- Niebuhr, R. E. & Boyles, W. R. (1991). Sexual harassment of military personnel: An

- examination of power differentials.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 445-457.
- Pryor, J. B. & McKinney, K. (1995). Research advances in sexual harassment: Introduction and overview.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7(4), 421-424.
- Pryor, J. B. & Stoller, L. (1994). Sexual cognition processes in men who are high in the likelihood to sexually hara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163-169.
- Pryor, J. B., LaVite, C., & Stoller, L. (1993).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of sexual harassment: The person/situation inter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68-83.
- Pryor, J. B. & Day, J. D. (1988). Interpretations of sexual harassment: An attributional analysis. *Sex Roles*, 18, 405-417.
- Pryor, J. B. (1987). Sexual harassment proclivities in men. *Sex Roles*, 17, 260-290.
- Tajfel, H. (Ed.)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ll, F. J. (1980). *Sexual harassment: A report on the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 Washington, DC: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Women's Educational Program.

부록 1. 성적 괴롭힘 척도

다음에 제시되는 일련의 문항은, 직장생활에서 남성들이 행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서술입니다. 각 문항이 귀하의 경험을 어느정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지, 아래에 제공된 척도에서 골라, 문항 옆의 빈칸에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
2
3
4
5
한 번도 없다
한 번
두 번
가끔
자주

직장에서, 나는 ...

- 1. 어떤 여성의 사생활을 적어도 한 명의 여성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남성 동료와 이야기한 적이 있다.
- 2. 여성의 신체에 대해 다른 여성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 3. 직장 밖에서 따로 만나자는 내 제안을 거절한 여성에게 계속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 4. 어떤 여성이 성적인 면에서 얼마나 매력적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 5. 여성의 신체 치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 6. 어떤 여성에게 여성의 성에 대해 농담한 적이 있다.
- 7. 어떤 여성에게 여성의 신체에 대해 농담한 적이 있다.
- 8. 여성의 신체를 주의깊게 응시한 적이 있다.
- 9. 어떤 여성이 성적으로 얼마나 나를 흥분시키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 10. 여성의 외모에 대해 놀린 적이 있다.
- 11. 여성의 성욕에 대해 놀린 적이 있다.
- 12. 여성의 성적인 신체 구조에 대해 다른 여성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 13. 내가 사람을 느낀 여성이 처음에 나의 호의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성적 친밀감이나 성적인 욕망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 14.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영화관람이나 등산과 같은 만남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만남을 요구한 적이 있다.
- 15. 어떤 여성에게 성과 관련된 명칭(예, 창녀, 해폰 여자)을 사용한 적이 있다.
- 16. 어떤 여성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 17. 어떤 여성의 여자답지 못함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 18. 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예, “여자가 무슨...”, “우리에게는 남자 상관이 필요해”)
- 19. 어떤 여성과 그녀의 성적인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예, “유부남과 데이트해 본 적이 있어요?”, “성경험 있어요?”)
- 20. 성과 관련된 나의 욕망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어떤 여성이 들을 수 있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예, “오늘밤은 누구와 함께 지내고 싶은 기분이야.”)
- 21. 어떤 여성에게 그녀가 성적인 면에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유익한 대가를 얻을 수도 있다고 암시한 적이 있다.
- 22. 어떤 여성에게 그녀가 성적인 면에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대우를 제대로 못받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 적이 있다.
- 23. 여성들이 볼 수도 있는 자리에 야한 그림이나 잡지, 또는 음란 비디오 등을 둔 적이 있다.
- 24. 어떤 여성의 반응을 보려고 그녀에게 야한 그림이나 잡지, 또는 음란 비디오 등을 보여 준 적이 있다.
- 25. 내가 친해지려고 다가가는 것을 거절하는 여성에게 다소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한 적이 있다.
- 26. 여성들의 생리용품을 보고 불쾌함을 겉으로 나타낸 적이 있다.
- 27. 어떤 여성에게 성적인 관심을 나타내면서, 구석으로 몰아세운 적이 있다.
- 28. 어떤 여성에게 성적인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그 뒤에 바짝 다가선 적이 있다.
- 29. 어떤 여성이 나의 교제 제의를 거절했을 때,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여성에게 뭔가 부정적인 결과가 가도록 일을 처리한 적이 있다.
- 30. 어떤 여성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나타내지만 명백하게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예, 컴퓨터 작업 중인 여직원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팔을 올려 놓기 등)을 한 적이 있다.
- 31. 어떤 여성이 원치 않을 때, 신체 일부를 다정하게 만지려고(예,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리기)한 적이 있다.
- 32. 어떤 여성이 원치 않을 때, 입맞춤이나 애무를 한 적이 있다.

부록 2.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성

다음은 현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들의 관계성에 관한 서술입니다. 귀하께서 이들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아래의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 | 0 | 1 | 2 | 3 | 4 | 5 | |
| | 강하게 | | 다소 | 조금 | 조금 | 다소 | 강하게 |
| | 반대 | | 반대 | 반대 | 동의 | 동의 | 동의 |
-
- 1. 어떤 남성이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하였다 할지라도, 만약 사랑하는 여성을 갖지 못했다면 그는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
 - 2. 많은 여성들이 “평등”이라는 미명아래, 실제로는 고용 정책 등에서 남성들보다 자신을 유리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특혜를 추구하고 있다.
 - 3. 재해를 만났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반드시 먼저 구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4.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실없는 말이나 행동도 성차별주의로 해석한다.
 - 5. 여성들은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한다.
 - 6. 사람들은 이성과 낭만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삶에서 종종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 7.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8. 많은 여성들이 남성에게는 거의 없는 순수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9. 여성은 남성에 의해 홀모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 10.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이 여성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 충분히 감사할 줄 모른다.
 - 11. 여성은 남성을 조종함으로써 권력을 얻고자 한다.
 - 12. 모든 남성은 사랑하는 여성을 가져야 한다.
 - 13. 남성은 여성 없이도 완전하다.
 - 14. 여성은 그들이 직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과장한다.
 - 15. 여성은 자신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남성을 얻게 되면, 대부분 그를 단단하게 속박하려 한다.
 - 16. 여성들은 공정한 경쟁에서 지게 되면, 대부분 그것이 여성 차별 때문이었다고 불평한다.
 - 17. 좋은 여자라면 자신의 남자에 의해 높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 18. 여성이 성적으로 헤이한 듯이 보였다가 막상 남성이 접근해 오면 이를 거절하는 식으로, 남성을 조롱하는 것을 즐기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다.
 - 19.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뛰어난 도덕적 감수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 20. 남성은 여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서 자신의 복지를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
 - 21. 여성주의자가 남성에게 하는 요구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 22.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문화에 대해 더 세련된 감각과 좋은 취향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Men's Motivation Toward Women and Sexual Harassment

Hyun Jeo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the psychology of men, the most likely sexual harassers based on men's self-report, within the framework of social psychology of motivation, especially focusing on men's ambivalent motive toward women. This research surveyed 485 men working in major companies in Seoul, Korea. As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motivation toward women is composed on two constructs: hostile sexism and benevolent sexism. The results of the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which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ambivalent motives and sexual harassment, indicated that both types of sexism had an influence on sexual harassment. Hostile sexism could lead to verbal harassment, while benevolent sexism could lead to relation-request or physical/environmental harassmen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and a couple of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entioned.